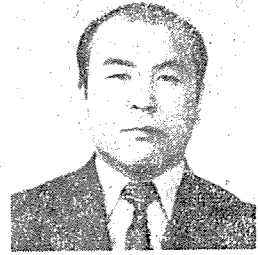


韓國口腔保健界의 當面課題

— 齒科衛生士養成機關이 大幅 增設된 契機에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김 중 배



齒科衛生士制度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치아의 청결이 타이우식증과 치주조직질환의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므로서, 豫防齒科醫藥가 口腔健康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확신한 Fone's가 1905년에 그의 부인이며 자기가 운영하는 치과진료소의 조수인 아이렌 뉴넨으로 하여금 예방치과 처치를 하게 하므로서 처음으로 생겼으며, 비교적 전형적인 民間主導齒科醫藥制度에 의하여 치과의료가 생산 분배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하여 오늘날 치과 위생사는 중요한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弗素塗布나 齒面洗磨(dental prophylaxis) 또는 食單調節 같은 예방치과처치와 口腔保健敎育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제도를 받아들여, 자기나라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學校齒科看護員制度로 발전시키므로서, 미국의 치과위생사보다도 더 가치있게 학교치과간호원을 국민보건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뉴질랜드의 학교치과간호원제도는 세계의 귀감이 되어, 싱가포르, 마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제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 구강건강관리부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오스트라리아에서도 자기나라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齒科治療士(dental therapist)라는 施術齒科醫藥補助員制度로 발전시켜, 중고등학교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에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65년 지현택 박사께서 연세의료원에 齒科衛生士養成課程을 부설하시므로서, 치과위생사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나, 그간 치과위생사양성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서야 신구전문학교 원광보건전문학교 서원보건전문학교 대구보건전문학교 경희대학교등에 치과위생사양성기관이 증설되므로서,

韓國口腔保健史가 새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 나라에서 구강건강을 발전시키려면, 우선 구강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고, 이에 관한 역학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서 기술적, 사회적 조치가 결정 강구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는 口腔保健關係人力資源과 組織 施設 法的의根據 口腔保健學理와 技術 財政 및 公衆의 支技와 參與등의 要因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계 요인은 인력자원이 먼저 해결되고, 해결된 인력자원의 主體的 機能에 의하여 점차 해결되는 것이고,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현대구강보건사업의 필수적인 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구강보건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 구강보건계에서도 대량 양성될 치과위생사를 활용하여 어떠한 概念 하에서 구강보건사업을 발전시킬 것이며, 어떠한 구강보건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므로서, 齒科醫藥消費者와 提供者의 權益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齒科醫藥傳達制度를 확립할 수 있을 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口腔健康管理 概念을 제검토하고, 치과의료소비자와 제공자의 입장을 광범위하게 고찰하여 그들의 권익과 의무가 서로 조화되도록 하며, 齒科醫藥의 需給狀을 조사 분석하여 새로운 齒科醫藥供給體系를 구상하고, 여기에 적합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 방안에 따라 齒學敎育課程과 齒科衛生士敎育訓練課程을 개편해야 할 것이고, 齒科機材와 藥品의 需給 및 管理 體系를 바로 잡으며, 齒科醫藥費傳達方法이 齒科醫藥의 實에 미치는 영향과 齒科醫藥費問題등을 연구하고, 口腔保健行政機能을 강화하여 양성된 口腔保健專門人力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齒協의 움직임

3월 4일 오후 7시 대림정에서 財務委員會를 開催하고 7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였음

3월 7일 오후 7시 신정에서 公報委員會를 開催하고 현안문제를 협의하였음.

오후 7시 신정에서 稅務對策委員會를 開催하고 稅務講座實施問題와 金錢登錄機設置에 대한 問題點을 檢討하고 國稅廳에 金錢登錄機設置에 대한 再考가 있도록 建議키로 하였음.

3월 9일 오전 8시 30분 협회 회관에서 第11回 定期理事會를 開催하고 각위원회보고가 있은다음 토의안건을 의결하였음.

=各委員會 報告=

○ 김영기 총무이사

1. 會員名簿를 2월 23日 全國各支部에 發送하였음
2. 2월 26日 마산에서 개최한 支部長會議에서 7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검토한 결과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음
3. 3월 26日 대전에서 전국각지부 총무, 재무회의를 개최하고 총회개회에 관한 제반문제를 협의할 계획임
4. 현재 총회에 관한 제반준비문제는 진행중에 있음

○ 한형진 치무이사

1. 4월 보건의 달을 계기로해서 금월부터 계몽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2개 방송국을 통해 구강보건계몽강좌를 실시할 계획임
2. 공보이사과 협의해서 Y.M.C.A와 협조해서 "설탕안먹기운동"도 아울러 전개키로 하였음.

○ 최광철 재무이사

- ① 2월중 회계보고(별첨)
- ② 재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였음
- ③ 예산안중 지부장회의에서 지적한 학술위원회의 보수교육비 및 학술대회 준비금을 삭감해서 배외활동비를 증액하였음.

○ 이성구 심사이사

건축법에 의거 의뢰기관 개설시에 건물대장에 의뢰기관용이 되지않았을 때에는 용도변경을 하게되어 보건사회부에 "병원"의 용어를 법적 해석해 줄것을 요구했으며 건설부에는 의원급 개설시에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없이 개설하도록 정하여 줄것을 건의하였음.

○ 이학배 국제이사

1. 제65차 세계치과연맹총회가 77.10.22부터 10.

28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키로 되어 등 록마감이 5월말까지로 되었음

2. 일본치과의학회가 동경에서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최키로 되었음.

○ 윤흥열 공보이사

1. 2월 4日 치의신보 132호와 2월 16日 치의신보 133호가 발간되어 발송하였음.
2. 3월 4日 K.B.S 방송국을 통해서 새마을치과 진료원사업의 통보를 했음
3. 3월 5日 공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치과의료문화상 수상대상자로 강준설씨를 추천키로 했으며 3월 16日 창간기념식을 거행키로 하였음

○ 허연욱 자재이사

- ① 세계각국 18개상사의 치과기재 가격조치를 요청하였음
- ② 리도카인을 1차로 2000통 공동구입알선을 했음

○ 이재현 부회장

새마을치과진료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음.

그동안의 진료실적은 별첨내용과 같음.

○ 신민철 부회장

지난 3월 7日 稅務對策委員會를 개최하고 稅務講座를 우선 지상으로 발표해서 주시킴키로 하고 금전등록기설치문제는 의협과 협의하여 공동보조를 취하여 치과의원의 특수성을 지적 시정건의를 하기로 하였음.

○ 김인철 회장

본협회 임원으로 취임하여 활동한지도 1년이 다가왔으며 그동안 협회사업을 위하여 여러분이 상호협조하여 노력한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일부에서 잡음이 이러나저러도 구에받지 말고 소신껏 적극적으로 치과계를 위하여 사업수행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람

=의 안=

① 정관개정안 심의
각 이사에게 배부된 정관개정안을 숙독 검토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의결키로 함

② 총회준비의 건
총회준비에 관하여는 총무이사에게 일임키로 함

③ 치과의료문화상 수상자선정
공보위원회에서 추천한 강준설씨를 수상자도 선정키로 하였음.

단 다음에는 과거 신문발간에 공노가 큰 이동섭씨의 추천을 고려키로 하였음

④ 치의신보 10주년기념식 개최
3월 16日 오후 6시 30분 신문회관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키로 결정

3월 11日 오전 9시 세종호텔 커피숍에서 새마을치과진료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현황보고 및 진료원운영권 이양문제에 관하여 논의 하였음.